

영국 패션 큐레이션 센터의 연구사례를 통한 패션 큐레이션 유형과 특성 연구

마 진 주*

홍익대학교 패션대학원 조교수*

요 약

본 연구는 영국 패션 큐레이션 연구센터의 연구사례를 통해 패션 큐레이션 분야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에 패션 큐레이션 분야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고취시키고, 그에 따른 다양한 방면에서의 실험적 작업과 연구들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초적, 선행적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연구 내용은 2014년부터 2018년 3월까지의 영국 패션 큐레이션 연구센터의 연구사례를 문헌조사와 사례조사를 병행하여 패션 큐레이션 연구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주제별 유형은 박물관학적 전시에 관한 연구, 패션 전시 솔루션에 관한 연구, 전시 오브젝트에 관한 연구, 큐레이션 동향에 관한 연구, 연구 형식은 전시, 세미나/토론/워크숍, 도서/논문/에세이, 연구 운영 방식은 산학협력, 협업, 펀딩, 소셜미디어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유형 분석을 통해 도출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적 작업을 통해 패션 큐레이션 분야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관례적인 전시 연출방식에 도전하여 다양한 연출방식의 실험과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및 협업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연구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패션 큐레이션 연구센터는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패션 안에서 현재 가장 의미 있는 주제 아래 패션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실험하는 것이 패션 큐레이션이 가져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 큐레이션 분야의 깊이와 범위를 확장시켜, 패션 전시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시도하고 있는 영국 패션 큐레이션 연구센터의 연구사례를 통해 패션 큐레이션 분야에 대해 보다 실험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패션 큐레이션 연구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패션 큐레이션, 패션 전시, 패션 큐레이션 연구센터, 패션 전시방법론 연구, 학제간 융합 패션 연구

이 논문은 2018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교신저자: 마진주, majinjoo@hongik.ac.kr

접수일: 2018년 5월 21일, 수정논문접수일: 2018년 8월 14일,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27일

I. 서론

1. 연구 목적

패션은 현재 그 가치와 맥락의 기준 및 범위가 다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패션 분야의 동향과 추세를 조망하고자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중 패션 전시는 예술, 디자인, 문화, 정치, 역사, 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분야들과의 경계를 허물며 그 범위를 넓혀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패션이 내포한 다양한 맥락을 어떠한 형식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패션 큐레이션(fashion curation) 분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런던 예술대학(University of Arts London, 이하 UAL)이 설립한 패션 큐레이션 연구 센터(Centre for Fashion Curation, 이하 CfFC)는 실험적 작업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통해 패션 큐레이션 분야에 대한 실기 및 이론적 연구를 심화시키는 연구소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패션 큐레이션 분야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 큐레이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패션 큐레이션 관련 연구는 주로 국내외 유명 패션브랜드나 디자이너의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로 제한적이며, 이는 완성된 전시에 관한 분석에서 그칠 뿐이다. 따라서 국내에도 패션 큐레이션 분야에서 보다 실험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발판으로서 기초적, 선행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패션 큐레이션 분야에 선구적인 CfFC의 연구사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CfFC의 연구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패션 큐레이션 유형과 특성을 제시하여 국내에 패션 큐레이션 분야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고취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와 큐레이션, 패션 큐레이션의 이론적 개념을 고찰한다. 둘째, CfFC가 주관하여 진행한 전시, 연구, 그 외 작업물들의 사례를 조사한다. 셋째, 조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한다. 전시와 큐레이션, 패션 큐레이션 개념에 관한 이론적 고찰은 관련 서적과 선행 연구논문 등을 통해 사전적 정의와 함께 개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진행한다. 그리고 CfFC가 설립한 이래 진행한 연구들을 연대순으로 CfFC 공식 웹사이트, 블로그 및 관련 인터넷 사이트, 논문, 기사 등에 게재된 사진들과 글을 통한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범위는 CfFC가 설립된 2014년부터 본 연구가 종료한 시점인 2018년 3월까지 CfFC의 공식 사이트(<http://www.fashion-curation.com>)에 게재된 전시와 연구, 도서, 그 외 세미나, 워크숍 등의 작업물로 제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전시와 큐레이션의 개념

Choi(2011)는 전시가 “박물관에서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려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의 총체이며, 이러한 관람객과 전시자료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과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공간화하여 구현된 것”으로 “무엇인가 전달하려는 의미와 전시자료가 가지는 내용이 내포되어야 하므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하였다(p. 10).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두 가지 것 이상의 사람과 사물이 어떠한 특정한 환경이나 계기로 인해 상호작용하는 어떠한 창조적인 행위로

규정했을 때, 전시의 목적은 특정 공간 안에서 창조적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시의 구성 요소는 전시 공간, 관람자, 그리고 전시자료이며(Choi, 2011),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전시의 콘셉트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디자인 기획방향, 소재, 미디어와 테크놀로지, 조명 및 사운드, 환경 등 전시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에 따른 세부적인 결정사항들을 총체적으로 감독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전시 큐레이션(curation) 또는 큐레이팅(curating)이라고 하며, 본 연구에서는 큐레이션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 따르면, 'curate'라는 단어는 라틴어 'cūra'에서 파생되어 '관심을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care'로부터 그 어원을 찾아볼 수 있다. 그 후, '돌보다/보살피다'라는 의미를 가진 'curare'와 '치료하다'의 의미의 'curer'로 파생되었고, 중세시대에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치료'의 의미로 쓰이는 것에서 발전하여 '관심을 가지다', '책임지다', '보살피다', '관리하다', '복원하다', '해결 하다'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Strauss, 2010). 여기에서 유추하여 볼 때 큐레이터의 역할은 관례적으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토대로 작품의 상태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ICOM(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에서는 큐레이터의 역할을 수집, 조사, 연구, 전시,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Kim, 2018).

그러나 근래의 큐레이터의 역할은 이러한 관습적 역할의 범위에서 벗어나 다변화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Heinich and Pollak(1996)에 따르면, 큐레이터의 역할은 전시의 개념적인 구성을 결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하며,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을 감독하는 것이다. 또한 린 쿡(Lynne Cooke)은 2003년 영국 왕립 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의 큐레이팅 콘템포러리 아트(Curating Contemporary Art) 석사 졸업전시의 서문의 문구에서 큐레이터가 "작품을 선정하고 디스

플레이 하던 직접적 관계에서, 내러티브를 생산해내고 전시 경험의 순서와 배치를 감독하는 능력으로 이전되었다"를 인용하면서 큐레이터의 역할과 권한이 재배치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Cooke, as cited in Marincola, 2006/2011, p. 43). 이것은 큐레이션이라는 분야가 더 이상 박물관이나 갤러리 공간 안에 작품들을 선정하고 연출하는 프로듀서라는 개념을 넘어서, 작품과 관람자, 그리고 작품과 관람자가 속한 공간이 큐레이션 방향에 따른 다양한 해석과 연구 방식에 따라 변화하고, 세 요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창조적 행위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의 가능성이 매우 유동적으로 변화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패션 큐레이션의 개념

지난 10년 동안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해외 유명 패션하우스의 전시들이 기록적인 관람객 수를 동원하며 잇따른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패션 전시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평가와 논쟁들이 대두되었는데, 일부 비평가들은 관람객들을 시각적으로 매료시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어 자칫 전시의 깊이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를 논하며, 패션이라는 카테고리가 과연 박물관학적 관점에서 학술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냐에 따른 쟁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전시를 여는 패션하우스 또는 디자이너와 전시 공간을 내어주는 박물관 모두 상업적 가치 측면만 바라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패션하우스나 디자이너는 전시를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박물관은 진지한 연구와 분석, 비평의 과정을 소홀히 하며, 티켓과 도서, 관련 기념품, VIP 리셉션 등을 통해 부수입을 올림으로써 상업적 성공만을 바라보고 단순 엔터테인먼트성 전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

이것은 어쩌면 패션의 속성이 다양한 분야와 함께 복잡한 구조로 얹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은 예술의 영역에도 속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의 대부분 동안 신체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여 착용자의 정체성과 착용자가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대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예술과 다르게 패션에서는 상업성 또는 영리성이 개입되고, 그에 따라 피상적 속성이 내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패션 전시의 영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쟁점 속에서 많은 의문과 논점을 제공하며, 이에 맞춰 패션 큐레이션 분야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전시 큐레이션 방식이 박물관이 소장한 작품들을 박물관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진 틀, 예를 들면 작품의 선정, 연구 방향, 전시의 형태나 연출방식 안에서 전시를 기획했다면, 패션 큐레이션은 다양한 내러티브나 맥락 아래 전시의 콘셉트나 연출방식의 범위가 혁신적, 실험적인 측면에서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리서치를 토대로 창의적인 내러티브와 전시방법론을 구축함으로써 관람자가 단순히 전시된 의상 작품을 시각적으로 감각하는 것을 넘어서 전시가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를 이끌어 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패션 큐레이션이 처음부터 기존의 박물관학적 관점에서 벗어난 전시를 추구했던 것은 아니다. 16-17세기 유럽에서는 개인이나 기관이 의복이나 관련 아이템을 소장품 개념으로 수집하였고, 20세기 전까지 박물관은 의복을 복식사적 측면에서 선보이는 유물로서의 장식미술품목으로 여겼다(Fukai, 2010). 20세기 초에 들어서야 패션 전시의 시초를 찾아볼 수 있는데, 1900년 프랑스 파리의 만국박람회에서 의상 전시장과 백주년 박물관, 그리고 현대 패션 전시장에서의 의상전시가 공식적인 패션 전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Park & Ham, 2014). 이렇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의복은 단순히 역사적 유물로써 연대기적으로 또는 타 유물과 다르지 않은 맥락과 연출방식으로 전시되다가 1971년 영국 런던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Victorial & Albert Museum, 이하 V&A)에서 열린 사진작가 세실 비통(Cecil Beaton)의 전시 『Fashion: An Anthology』을 기점으로 패션전시가 보여주는 맥락과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Clark et al., 2014). 주로 복식사에 기반하여 연대기적으로 보여주던 패션 전시가 이 전시를 계기로 V&A를 포함한 주요 박물관들이 복식이 아닌 패션을 박물관 내에 위치시키고, 옷이 아닌 디자인의 철학과 작품세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Anderson, 2000). 또한 이 전시의 연출방식은 전시 오브젝트를 단순히 유리 프레임에 가두어 보여주는 전통적인 연출방식에서 벗어나, 시대적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하여 그 시대의 이상적인 체형을 구현한 마네킨을 제작하여 의상을 입히거나, 추상적 연출을 위한 오브젝트나 설치물을 제작, 연출하고 향수를 이용하는 등 시각 외 감각적 경험을 부여하는 패션 부티크 분위기를 조성하는 전시방식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패션 전시연출에 관해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Melchoir, 2014). 뒤이어 1973년과 1974년에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Metropolitan Museum)에서 패션 에디터 다이애나 브릴랜드(Diana Vreeland)가 큐레이션한 전시 『The World of Balenciaga』와 『Romantic and Glamorous Hollywood Design』은 기존의 전시 연출방식에서 벗어나 무대세트장을 보는 듯한 연출을 보여주면서(Steele, 2008) 패션 전문가에 의한 패션 큐레이션의 실험적 시도가 이루어진 패션 전시였다.

또한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점차 순수예술의 범주에서 벗어나 인문학, 시각예술, 대중예술 등 다층적인 분야들을 포괄하려는 행보를 보인 것 역시 패션 전시가 박물관 안으로 입성할 수 있었던

계가 되었고, 이것은 박물관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되었다. 패션은 예술을 차용하고, 때때로 예술의 영역을 침범하기도 하며, 예술 역시 패션으로부터 영감을 얻는 상호작용 속에서 옷이라는 오브젝트의 피상적인 테두리를 넘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에 집중하면서 박물관 안에서의 패션은 점차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근래의 패션하우스들의 전시 큐레이션 방향은 단순히 의상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서 의상을 통하여 특정한 콘셉트의 공간을 연출하고, 그 안에 스토리와 메시지를 담아 관람객 또는 잠재고객들에게 환상과 가치를 제공하며 커뮤니케이션을 꾀하고자 하고 있다. Kim(2013)은 디지털 매체 기술 발달을 통해 패션 전시 공간 연출의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전시 공간의 개념이나 역할이 패션의 일부로서 융합되어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단순히 아카이브 컬렉션을 선보이는 것 외에 사진, 영상, 설치 작품, 아티스트와 콜라보레이션, 공예적 요소, 첨단 테크놀로지 접목 등을 전시에 접목시키면서 패션이 시각 문화의 한 분야로서 그 위치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II. 패션 큐레이션 센터의 연구사례 분석

1. 패션 큐레이션 센터

영국 런던예술대학(UAL)은 2014년 런던 컬리지 오브 패션(London College of Fashion, 이하 LCF) 소속 아래 CfFC를 설립하였다. 이는 지난 수년간 영국과 미국,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패션 전시의 개수가 급증하면서 패션 전시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함에 따라 패션 큐레이션 분야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한 데에 따른다. CfFC는 전시와 리

서치, 세미나, 워크숍, 출판, 토론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작업을 시도하면서 이론적 연구와 작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영국과 그 외 국가의 박물관, 갤러리, 기업, 학교, 아카이브, 프라이빗 소장품, 출판사 등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활발한 연구를 실행하고 있다. CfFC는 매우 평범한 옷일지라도 그것을 보여주고 해석하는 측면에 따라 매우 복잡해질 수 있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박물관학적 전시 콘텍스트 안에서 하나의 미디어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하여 연구의 범위를 첫째, 박물관학적 전시에 대한 연구, 둘째, 연구를 통한 의상을 전시하는 솔루션의 발전, 셋째, 다양하고 복잡한 내러티브나 해석을 통한 전시 오브젝트 접근, 넷째, 복식사적 패션의 역학, 미래 디자인, 큐레이션 동향 등에 관한 연구로 규정하고 있다 (Centre for Fashion Curation, n.d.). CfFC의 디렉터는 복식사학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큐레이터인 주디스 클락(Judith Clark)와 에이미 드라헤이(Amy de la Haye)로 LCF 패션 큐레이션 석사과정 교수로도 역임하고 있다. 클락은 1997년부터, 드라헤이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패션 큐레이션, 전시 디자인, 전시 역사와 이론, 복식사, 박물관학을 주제로 국제적인 학술행사, 박물관, 갤러리, 기업, 언론들과 함께 다양한 전시 관련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V&A, 벨기에 안트워프(Antwerp)의 모드 뮤지엄(Mode Museum), 네덜란드 로테르담(Rotterdam)의 보이만스 반 보닝겐(Boijmans van Beuningen), 이태리 플로렌스의 팔라조 피티(Palazzo Pitti) 등에서 전시를 기획, 연출하였다. 그 외 멤버로 클레어 윌콕스(Claire Willcox) 교수와 앨리슨 모로니(Alison Moloney), 2017년까지 CfFC 연구원이었던 제프리 호슬리(Jeffrey Horsley) 등이 있다. 현재 영국아트의회(British Council Art)로부터 펀딩을 지원받아, 연구원들과 함께 해외 대학이나 전시 관련 기관과 협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2. 연구사례

CfFC의 연구사례는 CfFC가 설립된 2014년부터 본 연구가 종료된 시점인 2018년 3월까지 CfFC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한 연구 프로젝트로 제한하여 조사하였으며, 연대순으로 나열하였다(Table 1).

- 1) 『Exhibiting Fashion: Before and After 1971』 (2014)

『Exhibiting Fashion: Before and After 1971』은 클락과 드라헤이, 호슬리가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개최된 국제적인 패션 전시들을 총 망라하여 공동 집필한 도서이다(Figure 1). 특히 이 도서는 현대

패션 전시의 시초라 할 수 있는 『Fashion: An Anthology』 전시의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일러스트레이션과 전시 관련 사진, 문서들을 포함하였다. 이 전시를 기점으로 패션 전시가 박물관학적인 태도에서부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패션과 패션 전시의 역사, 건축과 전시 디자인, 패션 큐레이션 등의 분야 등을 아우르며 설명함으로써 오늘날 패션 전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 2) 『Savage Beauty』 (2015)

윌콕스가 2015년 V&A에서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전시를 큐레이션 하면

Table 1. CfFC research works.

Year	Research Title	Form	Description	Note
2014	Exhibiting Fashion: Before and After 1971	Book	• Fashion exhibitions and curation from 20th century	-
2015	Savage Beauty	Essay	• Behind stories on Alexander McQueen exhibition	• Contributed on CfFC website
2015-2016	Louis Vuitton 'La Galerie'	Exhibition	• Louis Vuitton archive exhibition	• Collaborations with specialists & artisans
2016	Cabinet Stories	Exhibition	• Curating with a local community, prison & nursing home • Displaying with cabinets • Hosting talks & workshops	• Collaborations with LCF Social Responsibility and external curators
2016	Nice and Sleazy: Punk and Post-Punk T-Shirts	Exhibition	• The 40th anniversary of Punk project	• Support of a MA Fashion curation student's exhibition • Film screening event
2016-2017	Hardy Amies: A Dagenham Designer	Exhibition	• Along with the public cultural space establishment project	• Funded from Create London • Workshops/history-tour events
2016-2017	The Vulgar: Fashion Redefined	Exhibition	• Curating with the research on works and literary text	• Collaborations with literature & psychology researchers
2017	Present Imperfect: Disorderly Apparel Reconfigured	Exhibition	• Experimental research on display method-objects/body/text/installation	• Guide-tour programme
2017-2018	Gluck: Art and Identity	Exhibition	• Exhibition on/with the life & fashion of the members of a community	• Collaborations with external curators • Members involved in the exhibition • Talks & interview programmes
2018	Breaking the Mould: Fashion Curation for New Style Re-Publics	Seminar & Discussion	• Seminar & discussion on fashion curation at the University of Cape Town	• Funded from British Council Art • Planning collaborative project with South Africa
Regularly organized	LCF Archives- Object Reading Group	Research & Discussion	• Exhibition object research & discussion group with students, researchers & professors	• Supported by LCF archive collections • Interdisciplinary method



Figure 1. 『Exhibiting Fashion: Before and After 1971』.
From Clark. (2014).
<http://judithclarkcostume.com>



Figure 2. 『Savage Beauty』.
From Centre for Fashion Curation. (2015).
<http://www.fashion-curation.com>



Figure 3. 『Louis Vuitton 'La Galerie'』.
From Clark. (2015).
<http://judithclarkcostume.com>

서 겪은 에피소드들-디자이너와의 개인적 경험과 디자이너를 이해하고 전시를 연출하는 작업과정 등-을 회고 형식의 에세이로 집필하여 CfFC 웹사이트에 기고하였다(Figure 2). 이는 대중들이 흔히 접할 수 없었던 전시 기획의 뒷이야기들을 공유함으로써 패션 큐레이션 분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3) 『Louis Vuitton 'La Galerie'』 (2015)

클락의 큐레이션 아래 18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의상을 포함한 400여개의 오브젝트와 문서 아카이브를 연출한 전시이다(Figure 3). 1800년대부터 루이비통 가문의 집이자, 현재 오더메이드제품 제작을 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되었으며, 전시 테마는 가스통 루이비통(Gaston Louis Vuitton)이 1930년대에 만들었던 게임인 ‘파테키(Pateki)’에 영감을 얻어 수수께끼 퍼즐의 조각처럼 연출되었다. 클락은 여러 군데의 전시장 입구를 만들어 전시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모호하게 보여주는 연출방식을 통해 기존의 관례적인 갤러리에서의 전시 형태에 간섭하고 도전하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하였다(CfFC, 2016). 또한, 가발과 모자, 자수 등에 대표적인 디자이너나 전문제작자와 협업하여 전시 디테일의 완성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는데, 전시의 스토리텔링을 위한 시각적 연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마네킨이나 액세서리, 소품, 설치물 등의 사용에 매우 공을 들이고 관련 전문가와 협

업하는 것은 클락의 큐레이션 작업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것은 일상적 경험에서 벗어나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전시 연출을 통해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하여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Kim & Lee, 2017).

4) 『Cabinet Stories』 (2016)

CfFC 주관 아래 런던의 여러 큐레이터들과 패션 디자이너들과 협업한 이 전시는 더 이상 입지 않는 과거의 의복과 그것과 관련된 기억들, 그리고 현대 패션에서 사용되는 전통적 공예방식 등을 테마로 하였다(Figure 4). 전시의 참여 주체 또는 전시를 보여주려는 대상을 이스트 런던의 지역 커뮤니티, 여성 교도소, 요양원으로 구체화하고, 전시 연출방식을 캐비닛으로 제한하는 큐레이션 콘셉트와 방향이 기존 전시 큐레이션 사례들과 차별화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 조직안의 구성원들이 패션 전시를 접하고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이 전시는 패션을 통하여 교육, 기술, 문화, 사회 현상이나 변화에 대한 주제로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들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Nice and Sleazy: Punk and Post-Punk T-Shirts』 (2016)

호슬리의 큐레이션 아래 펑크(punk) 문화 40주년



Figure 4. 『Cabinet Stories』.
From Centre for Fashion Curation. (2016a).
<http://www.fashion-curation.com>



Figure 5. 『Nice and Sleazy: Punk and Post-Punk T-Shirts』.
From Centre for Fashion Curation. (2016b).
<http://www.fashion-curation.com>



Figure 6. 『Hardy Amies』.
From Centre for Fashion Curation. (2016c).
<http://www.fashion-curation.com>

을 기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개최되었다(Figure 5).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LCF 패션 큐레이션 전공의 학생이 연출한 전시도 병행하였다. 호슬리는 특히 자재나 소품, 그리고 사운드 등이 전시의 콘셉트를 연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여 공간의 자재나 의자, 거울 등의 소품에 사용된 소재, 색상, 그리고 사운드 등을 통해 극적인 연출과 영상, 그리고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를 조성하여 전시의 백드롭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기획하였다.

6) 『Hardy Amies: A Dagenham Designer』 (2016-2017)

이 전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담당 디자이너이자 쿠튀리에였던 하디 에이미스(Hardy Amies)가 유년시절을 보낸 집인 화이트하우스(the White House)를 공공 문화공간으로 기획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Figure 6). 전시 장소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벤트성의 특별 전시로서 대중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전시에 친숙하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연출되었다. 그에 따라 독창적이거나 기발한 연출방식을 실험 하기 보다는 디자이너의 삶과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 여왕이 입던 드레스들과 매장 에서 판매 되던 테일러드 남성복, 그리고 에이미스가 입었던 옷들과 그의 유년 시절의 사진과 편지 등을 전시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명료하게 보여주도록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간 투어, 공예 워크숍,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워크숍 개최를 통해 방문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7) 『The Vulgar: Fashion Redefined』 (2016-2017)

클락의 메인 큐레이션 아래 취향이라는 개념을 재 고찰해보는 전시로, ‘Vulgar(저속한)’라는 단어의 11가지 정의를 테마로 하여 과거의 의상과 다양한 디자이너들의 오프꾸뛰르, 레디투웨어 의상들을 통해 패션에서의 저속함의 의미와 사용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있다(Figure 7). 이에 따라 연출 기획단계에서 단어의 역사적, 문학적,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개념에 관한 연구를 관련 전문 연구자와 협력하여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패션과 텍스트간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이 전시를 기획하고 보여주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클락은 이 전시가 패션 전시의 역사에 관한 연구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패션 전시는 이제 패션 큐레이션과 소비문화에 따르는 하나의 반향으로서 역할하고 있다고 하였다(Centre for Fashion Curation, 2016c).

8) 『Present Imperfect: Disorderly Apparel Reconfigured』 (2017)

이 전시는 패션을 전시하기 위한 요소들: 오브



Figure 7. 『The Vulgar: Fashion Redefined』.
From Centre for Fashion Curation. (2016d).
<http://www.fashion-curation.com>



Figure 8. 『Present Imperfect: Disorderly Apparel Reconfigured』.
From Centre for Fashion Curation. (2017b).
<http://www.fashion-curation.com>



Figure 9. 『Gluck: Art and Identity』.
From Centre for Fashion Curation. (2017c).
<http://www.fashion-curation.com>

젝트, 신체, 텍스트, 설치 등을 포함한 전시 방법론을 실험하기 위한 설치작업으로, 닳거나 손상되고 소멸되는 옷을 주제로 하여, 오래되어 헤지고 불에 탄 의복과 패션소품들을 전시하였다(Figure 8). 전시 연출방식은 이러한 콘셉트에 맞추어 모듈러 스트러처가 착용했던 인체의 부재를 대신하여 연출되고, 3D 스캔으로 인체의 실루엣을 살리거나, 패턴사의 줄자 등의 소품을 이용하여 연출하였다. 또한, 시간, 일시적임, 트라우마 같은 단어들을 이용하여 텍스트를 통한 내러티브를 보여주었고, 작업과정과 내러티브를 공유하기 위하여 전시는 작업공간처럼 구성되었다. 이 전시는 뮤지엄 전시의 전통에 대한 관점을 재고찰하고, 실험과 혁신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전시연출 방법론의 진화를 연구한 실험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9) 『Gluck: Art and Identity』 (2017-2018)

이 전시는 부분적 동성애 차별법(the Partial Decriminalisation of Homosexuality Act) 제정 50주년을 기념하여 1917년부터 2017년까지 영국 서섹스(Sussex) 지방의 LGBTIQ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or Questioning, and Intersex)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의복을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어떻게 이용하였는가를 보여주었다(Figure 9). 빈티지의상 매장주인들의 지원을 통해 LGBTIQ들이 입었던 의복들을 수집하고,

그 지역의 아티스트였던 한나 글럭스테인(Hannah Gluckstein, 1895-1978)의 삶과 착용했던 의복, 작품을 전시하였다. 또한, LGBTIQ들의 인터뷰를 통해 의복과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이러한 큐레이션 방식은 2016년에 기획한 『Cabinet Stories』 전시의 맥락과 같이, 특정 커뮤니티의 구성원들과 함께 전시기획을 진행하고, 의복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공유했다는 점에서 패션 큐레이션의 새로운 방향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0) 『Breaking the Mould: Fashion Curation for New Style Re-Publics』 (2018)

CiFC는 영국아트의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남아프리카의 대학과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패션 큐레이션 관련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대학(the University of Cape Town) 교수와 연구자, 큐레이터 등과 함께 SN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패션 큐레이션에 관한 주제로 세미나와 토론을 진행하였다(Figure 10). 이 프로젝트는 해외 관련 분야의 전문가 연구자들과 함께 서로의 지식과 정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업할 기회를 찾는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또한 패션 큐레이션 분야의 범위를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의 연출에서 나아가 디지털 프레



Figure 10. Breaking the Mould, Fashion Curation for New Style Re-Publics.
From Centre for Fashion Curation. (2018).
<http://www.fashion-curation.com>



Figure 11. LCF Archives-Object Reading Group.
From Centre for Fashion Curation. (2017a).
<http://www.fashion-curation.com>

젠테이션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까지 확장하여 보았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

11) 『LCF Archives-Object Reading Group』

CfFC는 리서치 그룹을 구성하여 LCF 아카이브의 오브젝트들에 대하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Figure 11). 학생, 연구자, 교수들은 그들의 전공 분야와 지식을 기반으로 오브젝트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토론한다. 이러한 다학제간(interdisciplinary) 접근 방식은 전시 오브젝트를 다양한 분야와 맥락에서의 연구와 전시방법론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구체적인 오브젝트를 통한 패션 큐레이션을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3. 연구사례의 유형 및 특성

CfFC의 연구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유형-연구 주제, 연구 형식, 연구 운영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1) 연구 주제

CfFC의 연구 주제는 CfFC가 제시한 네 가지 연구 범위로 분류하였다. 첫째, 박물관학적 전시에

관한 연구에서는 박물관학적 전시에 관한 연구를 기점으로 패션 전시에 관한 연구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것은 패션 전시를 박물관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과거 전시 기획과 실행과정에서 얻은 결과들을 통해 패션 전시가 전달할 수 있는 학술적, 예술적 의미와 가치들을 발견해 나가고자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둘째, 패션 전시 솔루션에 관한 연구에서는 실험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패션 전시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이것은 학술적 연구를 통한 이론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전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전시 방법론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전시 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병행하여 해당 전시의 콘텍스트를 구체화시키면서 전시의 깊이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 역시 패션 전시 솔루션의 하나로 역할하고 있다. 셋째, 전시 오브젝트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제간 융합 방식으로 전시 오브젝트에 접근하고 해석하며 그에 따른 다양한 내러티브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어느 한 의복을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해석 하면 다양한 내러티브들을 창조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러티브 구축은 전시의 콘셉트가 되고 그에 따라 전시 오브젝트들은 큐레이션 방향에 따라 전시에서 보이는 방식과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넷째, 큐레이션 동향에 관한 연구는 패션 전시가 사회·문화적 현상이나 어떠한 담

Table 2.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ashion CfFC works.

Type		Characteristic	Works
Research Subject	Research on museological exhib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oadening of research methods on fashion exhib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hibiting Fashion: Before and After 1971 • Savage Beauty • The Vulgar: Fashion Redefined
	Research on fashion exhibition sol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actice-led research on display methodology • Depth-widening and concretization of fashion exhibition context with related programmes/ev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hibiting Fashion: Before and After 1971 • Savage Beauty • Louis Vuitton 'La Galerie' • Nice and Sleazy: Punk and Post-Punk T-Shirts • Present Imperfect: Disorderly Apparel Reconfigured
	Research on exhibition obj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roach/interpretation/narrative construction of exhibition objects through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resear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uis Vuitton 'La Galerie' • Cabinet Stories • Hardy Amies: A Dagenham Designer • The Vulgar: Fashion Redefined • Gluck: Art and Identity • LCF Archives- Object Reading Group
	Research on curation tre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roach of fashion curation trend based on historical/cultural discour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hibiting Fashion: Before and After 1971 • Present Imperfect: Disorderly Apparel Reconfigured • Breaking the Mould: Fashion Curation for New Style Re-Publics
Research Form	Exhib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llenge to conventional way of curation through a variety of experimental practices implemented by the CfFC memb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vage Beauty • Louis Vuitton 'La Galerie' • Cabinet Stories • Nice and Sleazy: Punk and Post-Punk T-Shirts • Hardy Amies: A Dagenham Designer • The Vulgar: Fashion Redefined • Present Imperfect: Disorderly Apparel Reconfigured • Gluck: Art and Identity
	Seminar / discussion / worksh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variety of participative/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program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eaking the Mould: Fashion Curation for New Style Re-Publics • LCF Archives-Object Reading Group
	Book / research paper / ess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riting for both academic resources and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hibiting Fashion: Before and After 1971 • Savage Beauty
Research Operation Method	Educational-industrial coop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vision of creative/experimental works to enterprises and practical work opportunities to stud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ce and Sleazy: Punk and Post-Punk T-Shirts • The Vulgar: Fashion Redefined
	Collabo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tempt to diverse research subjects & form through collaborations with various organizations/communities • Encouragement of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y members in research/exhib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uis Vuitton 'La Galerie' • Cabinet Stories • The Vulgar: Fashion Redefined • Gluck: Art and Identity • Breaking the Mould: Fashion Curation for New Style Re-Publics • LCF Archives-Object Reading Group
	Fun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tribution to research operation through funding from various organizations/institu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binet Stories • Hardy Amies: A Dagenham Designer • Breaking the Mould: Fashion Curation for New Style Re-Publics
	Social med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 means of communication and PR for continuous research op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shion-curation.com • https://twitter.com/CfFC_UAL • Mailing service

론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학술적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험 작업, 관련 전문가들과의 토론 등 다 각도 측면에서 큐레이션 동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 연구 형식

CiFC의 연구 형식은 전시, 세미나/토론/워크숍, 그리고 도서/논문/에세이를 통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전시는 패션하우스나 디자이너 또는 박물관이나 패션 전시 기획자가 CiFC에게 전시 큐레이션 업무를 전임하는 형식과 CiFC가 주관하여 전시 자체를 단독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CiFC가 큐레이션한 전시들은 다년간의 패션 박물관학과 복식사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연구원들의 패션 큐레이션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패션 전시 방법론 연구와 실험을 통해 관례적인 패션 전시 연출에 대한 도전과 전시 솔루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세미나, 토론,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 형식을 통한 연구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프리카 대학과 연계하여 패션 큐레이션에 관한 세미나와 LCF 아카이브컬렉션을 이용한 리서치모임을 들 수 있다. 이는 타 학교나 기관, 또는 다른 분야의 전공자와의 자유로운 지식 공유와 교류를 통한 학제간 융합연구로서의 접근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시 관련 토크나 워크숍, 전시투어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전시와 병행하여 기획, 진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전시 관람 경험을 순간적인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부대 전시 장치를 만들어 지속적 경험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관람객과 쌍방향적 요소를 도입하여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전시를 통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도서, 논문, 에세이 등을 통한 연구 형식이다. 복식사

나 패션 박물관학, 패션 큐레이션을 통한 성과나 결과물들을 도서나 논문 등의 학술적인 연구와 함께 에세이 같은 자유로운 형식의 글을 통해 패션 큐레이션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또한 대중들이 패션 큐레이션 분야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연구 운영 방식

CiFC의 연구 운영 방식은 산학협력, 협업, 펀딩, 소셜미디어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패션하우스나 기타 전시 기획자가 CiFC에게 제안하는 전시 프로젝트를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식들의 사례들이 조사되었다. 또한, CiFC의 연구 책임 아래 LCF 패션 큐레이션 전공 학생들이 전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 역시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패션 큐레이션 전공 학생들에게 전시 큐레이션 실무를 경험해 볼 기회를 제공하여 졸업 후 패션 큐레이션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영국의 패션 큐레이션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기업이나 학교, 박물관, 연구자, 디자이너 뿐 아니라 특정 기관이나 커뮤니티, 지역 주민 등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사회문화적 담론 안에서 가장 의미 있는 주제들을 전문가들이 아닌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전시에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그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패션과 삶에 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그들의 문화적 삶을 풍부하게 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영국 정부 산하의 영국예술의회가 주관하는 프로젝트나 공공프로젝트로부터의 펀딩, 또는 지역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예술 및 디자인 교육과 관련 산업 지원, 그리고 다양한 전시 문화가 발달한 영국의 문화적 특성에 기반하여 관련 지원 프로젝트들이 다수 존재하는 여

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넷째, 블로그, 트위터, 메일링 서비스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CfFC 관련 뉴스와 패션 큐레이션 분야의 연구 작업들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들에게 전시 관람이나 관련 프로젝트 참여를 독려하고, CfFC가 진행한 작업물 외에도 패션 큐레이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주제나 패션 전시, 패션 큐레이션 전공 학생들의 전시 리뷰 등을 활발하게 게재하면서 패션 큐레이션 분야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또한 향후 앞의 세 가지 연구 운영 방식인 산학협력이나 협업, 펀딩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하나의 연구 운영 방식으로 볼 수 있다.

IV. 결 론

패션 큐레이션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유명 패션하우스나 디자이너의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로 제한적이었으며, 패션 큐레이션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 및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패션 큐레이션 분야에서 선도적인 작업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CfFC의 연구사례를 통해 패션 큐레이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연구 작업 사례들을 살펴보면, 연구 주제별로 박물관학적 전시에 관한 연구, 패션 전시 솔루션에 관한 연구, 전시 오브젝트에 관한 연구, 큐레이션 동향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연구 형식별로는 전시, 세미나/토론/워크숍, 도서/논문/에세이, 연구 운영 방식으로는 산학협력, 협업, 펀딩, 소셜미디어로 그 유형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CfFC가 작업하는 패션 큐레이션 연구 특성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옷을 수집하고 연구하여 전시하는 범위에

서 벗어나, 패션 큐레이션 분야 자체를 주제로 한 실험적 작업을 통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패션하우스나 디자이너의 의상을 다루는 회고전이나 어떠한 문화 현상 또는 예술 사조에 영감을 받은 패션을 고찰하는 기존 연구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예술, 문화,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맥락에서의 패션 현상을 기록하고 해석하면서 다양한 주제와 학제 간의 융합적 연구에 방향성을 두고 있다. 이것은 동시대 문화나 사회적 현상, 변화에 대한 통찰적 이해를 통해 패션 전시 및 관련 프로젝트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내러티브의 구축 뿐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시 방법론 연구를 통해 관례적인 전시 연출방식에 도전하여 다양한 연출 방식의 실험을 꾀하고 있다. 또한 전시 이외에 세미나나 토론,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담론적, 참여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패션 큐레이션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술적 자료로서의 도서나 연구 논문 외에도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에세이 형식으로서의 글도 집필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분야의 기관, 전문가/비전문가와와의 협업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 방식을 통한 패션 큐레이션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 진행방식은 기업에게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전시 결과물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실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이것은 영국의 패션 큐레이션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구조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프로젝트 업적은 정부 산하의 펀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써 연구 운영에 선순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패션 전시와 큐레이션에 관심 있는 대중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CfFC를 홍보하면서 지속적인 운영 방식에 도움이 되고 있다.

따라서 CfFC의 패션 큐레이션 연구는 최근 국내외로 패션 전시가 급증하고 성공 사례들이 잇따

름에 따라, 감각적 경험의 제공이나 상업적 이익에 초점을 맞춰 흐를 수 있는 패션 큐레이션 분야에 대해 깊이와 범위를 확장시켜 보다 실험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패션 큐레이션 연구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의복이 사회, 문화, 정치, 예술적 측면에서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여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의미와 가치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 오브젝트라는 것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Heinich and Pollak(1996)이 “미술관과 큐레이터가 그들 자신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술 담론들 중 가장 중심에 있는 의미심장한 주제들”(p. 176)을 중심으로 전시를 기획하는 것이 현재 전시 큐레이션이 가진 방향성이라고 하였듯, CfFC는 연구들을 통해 패션 안에서 현재 가장 의미 있는 주제 아래 전시를 기획하는 것이 패션 큐레이션이 가져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패션 큐레이션 분야만을 연구하기 위해 다년간의 패션 전시나 큐레이션 분야의 연구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외부 전시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기획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곳은 CfFC 이외에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CfFC 연구사례가 패션 큐레이션 동향을 전망하는 데에 있어 기초적, 선행적 연구로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CfFC가 진행하는 연구가 총체적인 패션 큐레이션의 동향을 보여주기에는 한정적인 것은 자명하다. 또한 유형별 분류를 CfFC가 지정한 연구 범위와 연계하여 분석하였으나, 각각의 연구사례들을 연구 범위에 맞춰 명확히 분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에 따라 유형별 분석이 좀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패션 큐레이션 분야의 학문적 접근을 통한 연구부터 실험적인 작업까지 아우르는 그들의 연구를 참고하여 국내에도 패션 큐레이션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국내

에는 아직 패션 큐레이션 관련 연구나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연구, 기획하고 실행하는 곳이 없다. 패션 큐레이션 분야는 이론적 연구 뿐 아니라 실험 작업에 기반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다양한 형식의 프로젝트를 통한 패션 큐레이션 분야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해외 유명 패션하우스들의 순회전시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 패션 전시 흐름에서 벗어나, 패션 큐레이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 국내에서 기획된 패션 전시가 해외로 초대되고, 패션 프리젠테이션 분야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기초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 패션 큐레이션 분야의 앞으로의 변화된 유형과 특성 분석을 위하여 좀 더 다각화된 사례 연구나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Anderson, F. (2000). Museums as fashion media. In Bruzzi, S., & Gibson, P. C. (Eds.), *Fashion cultures: Theories, explorations and analysis* (pp. 371-389).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entre for Fashion Curation. (n.d.).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Retrieved May 20, 2018, from <http://www.arts.ac.uk/research/research-centres/centre-for-fashion-curation>
- Centre for Fashion Curation. (2015, January 25). Reflections on Savage Beauty. *Centre for Fashion Curation*. Retrieved May 10, 2018, from <http://www.fashion-curation.com/?s=savage+Beauty>
- Centre for Fashion Curation. (2016a, October 26). Cabinet Stories opens to the public. *Centre for Fashion Curation*. Retrieved May 10, 2018, from <http://www.fashion-curation.com/2016/10/13/cabinet-stories-opens-public>
- Centre for Fashion Curation. (2016b, November 23). A Brief and Incomplete Account of Punk Fashion Exhibitions. *Centre for Fashion Curation*. Retrieved May 10, 2018, from <http://www.fashion-curation.com/2016/11/23/brief-incomplete-account-punk-fashion-exhibitions>
- Centre for Fashion Curation. (2016c, December 1). Installing Hardy Amies: A Dagenham Designer. *Centre for Fashion*

- Curation. Retrieved May 10, 2018, from <http://www.fashion-curation.com/2016/12/01/installing-hardy-amies-dagenham-designer>
- Centre for Fashion Curation. (2016d, December 8). The Vulgar: Fashion Redefined. *Centre for Fashion Curation*. Retrieved May 10, 2018, from <http://www.fashion-curation.com/2016/12/08/vulgar-fashion-redefined>
- Centre for Fashion Curation. (2017a, February 15). LCF Archives: Object Reading Group. *Centre for Fashion Curation*. Retrieved May 10, 2018, from <http://www.fashion-curation.com/2017/02/15/815>
- Centre for Fashion Curation. (2017b, May 12). present1 imperfect2. *Centre for Fashion Curation*. Retrieved May 10, 2018, from <http://www.fashion-curation.com/?s=imperfect>
- Centre for Fashion Curation. (2017c, November 15). Installing Gluck. *Centre for Fashion Curation*. Retrieved May 10, 2018, from <http://www.fashion-curation.com/?s=gluck>
- Centre for Fashion Curation. (2018, February 27). Breaking the Mould, Fashion Curation for New Style. *Centre for Fashion Curation*. Retrieved May 10, 2018, from <http://www.fashion-curation.com/2018/02/27/breaking-mould-fashion-curation-new-style-re-publicis>
- Choi, J. H. (2011). *Exhibition design guide of museum*. Seoul: Miseum.
- Clark, J. (2014). Exhibiting Fashion: Before and After 1971. *Judith Clark Studio*. Retrieved May 20, 2018, from <http://judithclarkcostume.com/print>
- Clark, J. (2015). La Galerie Louis Vuitton. *Judith Clark Studio*. Retrieved May 20, 2018, from <http://judithclarkcostume.com/exhibitions/108>
- Clark, J., De la Haye, A., & Horsley, J. (2014). *Exhibiting fashion: Before and after 1971*.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Fukai, A. (2010). Dress and fashion museums. In Eicher, J. B. (Ed.), *Berg encyclopedia of world dress and fashion* (pp. 288-293). Oxford: Berg Publishers.
- Heinich, N., & Pollak, M. (1996). From museum curator to exhibition auteur: Inventing a singular position. In Greenberg, R., Ferguson, B. W., & Nairne, S. (Eds.), *Thinking about exhibitions* (pp. 231-250). London: Psychology Press.
- Kim, H. S., & Lee, J. H. (2017). A study on storytelling strategy and types of fashion visual merchandising: Focused on show window. *Journal of Fashion Design*, 17(4), 49-66. doi:10.18652/2017.17.4.4
- Kim, J. W. (2018, May). Curating Methodology: Individual vs group. *Public Art*, pp. 40-63.
- Kim, Y.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urrealism fashion design and the merging of exhibition and digital medi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3(3), 58-74.
- Marincola, P. (2011). *What makes a great exhibition* (Cho, J. H. Trans.). Seoul: Mimesis. (Original work published 2006)
- Melchior, M. R. (2014). Introduction: Understanding fashion and dress museology. In Melchior, M. R., & Svensson, B. (Eds.), *Fashion and museums: Theory and practice* (pp. 1-16).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 Park, J. H., & Ham, Y. J. (2014). The exhibition of modern fashion in museum.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42(-), 449-460. doi:10.21326/ksdt.2014.42.041
- Steele, V. (2008). Museum quality: The rise of the fashion exhibition. *Fashion Theory*, 12(1), 7-30. doi:10.2752/175174108X268127
- Strauss, D. L. (2010). *From head to hand: Art and the manu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tudy on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ashion Curation based on the Works by the Centre for Fashion Curation in UK

Ma, Jin Joo⁺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Fashion, Hongi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aise the awareness of and interest in the field of fashion curation through the discussion of the current situation of it based on the works by the Centre for Fashion Curation in UK. With a literature study of fashion exhibition and curation, the study classifie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fFC works between 2014 and March 2018. The types of research subject of CfFC are museological exhibition, solutions to display fashion, exhibition objects, trend of fashion curation. The research forms are exhibition, seminar/discussion/workshop and book/article/essay, and the ways of research management are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collaborative work, funding and social-media. The followings are the characteristics of fashion curation by CfFC. Firstly, they research the discipline of fashion curation based on experimental practices. Secondly, they plan and execute a variety of experimentations on ways of displaying and different types of programmes. Thirdly, they manage their projects through collaborative works and on-line communication. This result has an implication that future research direction of fashion curation should be to challenge current trend of fashion exhibitions merely providing visceral experience or focusing on commercialit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experimental practices and researches in depth. Further, they try boundless potentials of meaning and contributions that the field of fashion curation could have. This study is expected to inspire concerns for the field of fashion curation in Korea and further aid to vitalise creative and innovative practices and researches in diverse contexts.

Key words : fashion curation, fashion exhibition, Centre for Fashion Curation, fashion exhibition methodology research, interdisciplinary fashion research